

<표준영정DB 편찬 내용 및 방법 - 궁중기록화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본 연구팀은 표준영정에서 추출한 인물과 인물의 복식 정보를 통해 1차 년도에 개발한 궁중기록화DB 플랫폼에서 제외되었던 주제들을 보충, 보완하고자 한다.

1차 년도에 개발한 궁중기록화DB의 경우 ‘궁중기록화’라는 주제 하에 한국인이 알아야할 대표복식 중에서 왕실복식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표준영정의 조선시대 인물 43명 중 22명, 즉 5명의 왕실인물과 17명의 문무백관의 복식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보여준다. 기존 복식 노드와 연결됨과 동시에 신규 노드를 추가하여 세부적인 복식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1명의 표준영정을 통해서는 1차 년도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반의 연거복 및 반가 여성의 복식에 대해 보충하고자 한다. 표준영정의 조선시대 인물들의 착장복식 고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지만 복식학자가 동상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연도가 81년도부터인 것<sup>1)</sup>을 감안하여 그 이전시기(73~80년)에 지정된 조선시대 인물 8명<sup>2)</sup>의 착장복식은 더욱 유심히 연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궁중기록화DB’와 ‘표준영정DB’의 연계 작업을 통해 왕실에서 반가에 이르기까지 착장신분의 범위를 확장하여 폭넓은 복식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총 96명의 인물 중 조선시대 인물 43명은 왕실인물, 관복, 군복, 편복(연거복), 여성복 총 5개 항목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연결되는 복식 정보 및 추가 복식 노드는 【표 1】 과 같다.

【표 1】 표준영정 기준 궁중기록화 관련 예시

번호	표준영정 인물	표준영정 복식	궁중기록화 해당 복식	세부 복식
1	세종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	상복(常服)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 옥대(玉帶) 버선[襪] 녹피화(鹿皮靴)
2	철종	용복(戎服)	용복(戎服)	전립(氈笠) 전복(戰服) 동다리(同多里) 전대(戰帶) 요대(腰帶) 목화(木靴)
∴	∴	∴	∴	
6	김육	사모(紗帽) 단령(團領)	- 상복(常服)	사모(紗帽) 단령(團領) 품대(品帶) 화(靴)
7	유성룡	조복(朝服)	조복(朝服)	양관(梁冠)

1) 이영미(2015), 「韓國標準影幀研究:制度的 制定과 變遷過程을 中心으로」, 흥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3.  
2) 이순신(1973), 세종대왕(1973), 정약용(1974), 이황(1974), 이이(1975), 조헌(1975), 김정호(1975), 김정희(1978)

<표준영정DB 편찬 내용 및 방법 - 궁중기록화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상의(上衣) 하상(下裳) 중단(中單) 폐슬(蔽膝) 수(綬=후수) 대대(大帶) 혁대(革帶) 패옥(佩玉) 버선[襪] 화(靴) 홀(笏)
∴	∴	∴	∴	
26	김병연(김 삿갓)	삿갓 두루마기		삿갓 두루마기
27	정약용	방관(方冠) 도포(道袍)	편복(便服)	방관(方冠) 도포(道袍)
28	이이	복건(幅巾) 심의(深衣)	편복(便服)	복건(幅巾) 심의(深衣) 화(靴)
∴	∴	∴	∴	
42	김만덕	장의(長衣) 치마(赤尒)	장의(長衣, 장옷) 치마(赤尒) 여성 반가 편복	장의(長衣, 장옷) 치마(赤尒)
43	허난설헌	저고리(赤古里) 치마(赤尒)	여성 반가 편복	저고리(赤古里) 치마(赤尒)

표준영정의 인물을 통해 '궁중기록화DB'에서 다루지 못했던 복식과 관련된 사건 및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궁중기록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주제를 확장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의 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1. 표준영정에 있는 '정약용'이 저술한 여유당전서에서 연거복의 구성요소로 '도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문집에서는 복식에 대한 기원, 구성, 개인의 견해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등에서 언급한 도포 기록과 연계시켜 이야기할 수 있다. 2. 표준영정에 있는 '허난설헌', '김만덕'의 머리 형태인 '엷은머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치와도 관련이 있다. 엷은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빌려 자신의 머리에 더해 엷은 '가체'가 성행했는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기록된 가체와 관련된 일화와 이에 대한 상소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의 <가체신금절목>을 통해 가체가 금지되고 '족두리'로 대체된 당시 상황과 이를 기록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과 연결될 수 있다. 더불어 앞선 내용의 '정약용'과 '이덕무'를 연관시켜 복식과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더 확장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시 양반들이 가졌던 복식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